

힐링 콘서트 (1)

그대, '두근두근' 그 설렘과 떨림을 가졌는가

인생 앞에 놓인 설렘과 불안
청춘처럼 아름다운 도전 멈추지 말자

질병 치료는 과학이지만
환자를 이해하고 응대하는 것은 예술

"그대, '두근두근' 그 설렘과
떨림을 가졌는가?"

정재찬 한양대 국어교과 교수는 병원간호사회가 개최한 특강에서 시와 소설, 영화, 노래를 넘나들며 인생의 굽이굽이에서 가슴을 두드리는 설렘과 떨림의 소리 '두근두근'을 찾아 들려줬다. 정재찬 교수는 베스트셀러 '시를 읊은 그대에게'를 통해 시 읽는 즐거움과 힐링을 선물했으며, 시를 통한 몽상과 묵상이 녹아 있는 시 에세이 '그대를 듣는다'를 폄졌다.

두근두근 찾기에 앞서 정재찬 교수는 "시는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이며, 너무나 섬세하고 특별 해서 기존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으로부터 시야(詩語)가 나온다"면서 "환자의 섬세한 감성과 상태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은 마치 시어와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 치료는 과학이지만, 환자를 한 사람의 존엄한 존재로 이해하고 개개인의 요구에 귀기울여 응대하는 것은 인문학이며 예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요지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와 감정을 이해해주는 것"이라면서 "환자가 아프다고 호소하거나 불평을 할 때는 왜 그렇게 하소연하는지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찬 교수는 "시는 상대의

감성과 생각, 요구에 귀기울이는 것으로 소통과 위로의 언어"라면서 "오감을 훈련하며 추억을 반복하게 하는 '두근두근'은 마법의 시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시절 꿈틀을 넘 때처럼 성공을 기대하는 설렘과 실패에 대한 불안이 공존할 때 나는 소리가 두근두근"이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참으로 많은 꿈틀이 있고, 설렘과 불안이 맞부딪치는 가운데 도전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이를 태운에 품고 출산을 기다리는 엄마의 심장만큼 두근거리는 것이 세상에 또 있겠나"면서 "임신과 출산은 인생의 가장 두근거리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정재찬 교수는 "인생의 생로병사 모두가 기대와 불안으로, 설렘과 떨림으로 두근거리는 일"이라며 "불가능해 보이는 첫사랑에 도전하는 청춘처럼 죽는 순간까지 설렘과 떨림, 이 아름다운 도전을 잊지 말자"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hanmail.net) 문의.

감염관리간호사회 학술대회

감염관리간호사회(회장·손혜숙)는 회원역량강화 교육으로 '수지유프로그램'을 9월 6~7일, 12~13일 황성술집에서 개최한다. 강원도간호사회 소속 등록회원 중 40~50대(6~7일) 및 60~70대(12~13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다. 선착순 40명(기관별 2명 이하),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edu.kna.or.kr)에서 등록, 등록비 무료, 사전등록 7월 31일까지, 033)263-6417.

서울간호학술상 공모

서울시간호사회(회장·김소선)가 '제10회 서울간호학술상'을 8월 11일까지 공모한다. 2017년도 학회지 마발표 석·박사 학위논문 또는 2017년도 국내외 학술지 제재 및 국제제에 전문논문 대상, 대표저자 및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는 모두 2017년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이면서, 대표연구자는 서울시간호사회 회원이어야 한다. 대상 1편(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3편(각 70만원), 우수상 5편(각 50만원), 장려상 5편(각 30만원)을 선정해 시상, 9월 19일 열리는 서울간호학술대회에서 시상식 및 논문발표. 구비서류 홈페이지(seoulnurses.or.kr) 공지사항 참조. 02)853-5497.

웃음임상전문간사 교육과정

대한웃음임상학회(회장·박원숙)는 '웃음임상전문간사 교육과정'을 9월 9~10일 경희대학교 운동장 6층에서 개최한다. 근거기반 웃음이론의 최신 지침에 대비해 강의와 실습적인 현장 적용 프로그램 실습으로 진행된다.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종사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kslcl.org) 참조. 이메일(hahnurses@daum.net) 문의.

임상연구코디네이터 학술대회

한국임상연구코디네이터회(회장·정인숙)는 '임상연구코디네이터의 역할' 주제 학술대회를 8월 25일 오전 9시 중앙대 102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간호사·보수교수(8시간) 인정, 8월 20일까지 접수. 선착순 150명,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edu.kna.or.kr)에서 등록. 학회 홈페이지(kebn.or.kr) 참조. 이메일(kebn-bp@kebn.or.kr) 문의.

한국간호학회(회장·김순찬)는 '고령화' 주제 연수과정(심화)을 8월 25일 오전 9시 중앙대 102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간호사·보수교수(8시간) 인정, 8월 20일까지 접수. 선착순 150명,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edu.kna.or.kr)에서 등록. 학회 홈페이지(kebn.or.kr) 참조. 이메일(kebn-bp@kebn.or.kr) 문의.

충북간호사회,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간담회

충북간호사회(회장·
한명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의 간담회를 7월 10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북간호사회 회장과 간호분야별 임원들이 참석했다. 정성업 충북보건복지국장이 배석했다.

한명자 회장은 이시종 도지사에게 충북간호사회 주요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각 분야별 간호현안과제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시종 도지사는 "다양한 분야



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의 역할과 애로사항에 대해 듣고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면서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환자의 주민들을 섬기면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간호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강원도간호사회 임원 워크숍

강원도간호사회(회장·손혜숙)는 임원 워크숍을 7월 7~8일 개최했다. 강원도간호사회 임원 및 분회장들이 참석해 간호사회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강원도간호사회가 2018년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개최하게 될 기념행사 준비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암호목걸이 만들기 체험을 통해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원도간호사회는 9월 6~7일 및 12~13일에 실시하는 회원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경기도간호사회, 경기도 의약단체와 해외봉사활동

경기도간호사회(회장·김인자)는 해외간호봉사를 필리핀에서 7월 4~9일 실시했다.

경기도간호사회를 비롯한 경기도 5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의료봉사단의 일원으로 참가해 간호봉사활동을 펼쳤다. 경기도가 후원했다.

2010년부터 정기적으로 봉사를 통해 해외로 헤아고 있으며, 올해는 회원 11명이 참여했다.

간호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의료취약지역인 바세코, 나이를 방문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강관리 및 손씻기 교육을 진행했다.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수정 기자 sjchoi@

충남보건진료소장회 직무연찬회 개최



충남보건진료소장회(회장·김순찬)는 효과적인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진료소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충남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및 보건진료소장 직무연찬회'를 7월 11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핵정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허승우 충남정부부지사, 안근혁 충남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등과 함께 회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건진료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역할에 대해 함께 소통하며 의견을 나눴다.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보건진료소의 역할

이 도민 행복지수의 조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지역주민 인문학으로 만나다' 주제로 김춘애 한국서비스교육원장이 특강했다.

한편 충남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총회에서는 새 회장을 김영남 공주시운영협의회장이 선출됐다.

주체진 기자 hjojo@

병원응급간호사회 응급실 간호관리자 세미나

병원응급간호사회(회장·
이병옥)는 '응급실 간호관리자 세미나'를 7월 7일 개최했다. 전국 응급실 간호관리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응급간호사회'의 비전을 주제로 열렸다.



민의의를 펼쳤다.

이병옥 회장은 "작년에 권역별 간호관리자 네트워크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권역 및 센터급 간호관리자 세미나를 열게 됐다"면서 "회원들이 소통하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응급실 간호사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간호대학(과)장협의회 '간호교육인증평가' 워크숍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회장·
유문숙)는 '간호교육 인증평가 원형과 개선방향' 주제 하계워크숍을 7월 13일 개최했다.



전국 80개 회원학교의 학과장들이 참석했다. '3주기 인증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방향: 학과장 의견 중심으로' 연구를 강연, 대상자에게 발표했다.

강연은 신동근 박사(용인성신병원 진료과장)이,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준비 사례' 연구를 김동희 이사(성신여대 간호대학장)이 발표했다. '간호현장에서 요구하는 신규간호사의 역량' 주제로 송경자 서울대 병원 간호수석정책관이 강연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KNA 면허신고센터 콜센터 1644-1755

세명기독병원 남자간호사 역량강화 세미나

포항 세명기독병원은 '남자간호사 역량강화 세미나'를 7월 1일 열었다.



행사 준비위원회 대표를 맡은 김내한 수간호사는 "우리 병원의 남자간호사 비율이 10%에 이른다"면서 "남자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능력을 확장시키고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최명진 간호본부장은 "남자간호사들이 여려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동선 세명기독병원 이사장은 "남자간호사에 대해 내심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켜봐왔는데, 이제는 남자간호사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손인석 대한남자간호사회 부회

장(손재림의료재단 이사장)은 "지방에서 남자간호사의 발전을 위한 행사가 열려 기쁘다"면서 "남자간호사는 종강과 지방의 연계를 긴밀히 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세상' 간호의 카리스마를 만나다' 특강을 배경으로 세명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이 했다. '남자간호사' 주제로 최정훈 삼성창원병원 수간호사가 강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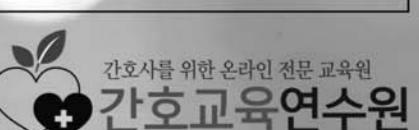
참석자들은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서로 힘을 복돋우는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간호사의 열정으로 한번 더 JUMP!

20년 전통의 간호교육연수원이 간호사들의 새로운 도전과 함께합니다.

간호직공무원 / 보건진료직공무원 / 보건직공무원 / 보건복지부공무원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간호사를 위한 온라인 전문 교육원
간호교육연수원

무료상담 080-529-0909 | www.ganhohak.co.kr